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11.23.(월) 조간 배포 2026.11.22.(일) 09:00

이억원 금융위원장, 글로벌 금융안정 공조와 한-유럽 금융협력 강화로 한국 금융의 지평 넓혀

- **FSB 총회**에 참석하여 금융 취약점, AI, 스테이블코인 등 글로벌 금융현안 논의
- ECB와 **은행감독협력 MOU**에 최종 합의하여 한-EU 협력기반 강화
- **영국**에서 **3각 채널 금융외교**를 전개하고, **금융협력** 및 **해외진출** 기반 확대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1.15일(일)~21일(토) 일정으로 유럽(스위스, 독일, 영국)을 방문하여 **글로벌 금융안정**을 위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유럽 주요 금융당국**과 **협력 기반**을 확장해 나갔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28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 수임** 준비의 일환으로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하고, **'27년 의장국인 영국**을 방문하여 금융협력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ECB)과는 **은행감독협력 업무협약**(MOU) 내용에 최종 합의하였다. 특히, 글로벌 금융중심지 런던에서는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교류를 통해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독일과 영국에 진출한 한국 금융회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지 영업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1 FSB 총회(Plenary) 참석

이 위원장은 FSB **총회**(의장: Andrew Bailey, 영국 영란은행 총재)에 참석하여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금융안정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FSB는 G20을 포함한 주요국의 **금융당국** 및

중앙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로 구성되어 **글로벌 금융규제 방향**을 설정하는 협의체로서,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09.4월 **G20 주도**로 출범하였다.

한국은 **'28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 수임을 앞두고 '27년부터 전임·현임·차기 의장국으로 구성되는 **G20 트로이카***의 일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이 위원장은 향후 G20 차원의 **글로벌 금융안정 의제** 논의를 **주도**하고, **주요국** 및 **국제기구**와의 **정책 공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금번 총회에 참석하였다.

* 트로이카(Troika): 핵심 의제의 연속성 확보 및 정책 조율을 통해 G20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협력 체제로, '27년 기준 전임(미국)·현임(영국)·차기(한국) 의장국으로 구성

이번 총회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취약성(Vulnerabilities), 인공지능(AI),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비은행금융중개(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 NBFI), FSB 2027년 업무계획 등 주요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개요 】

◇ **(연혁)** G7을 주축으로 설립된 **금융안정포럼(FSF)**을 **전신**으로 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G20**이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로 확대·개편

◇ **(기능)** 국제기준 및 정책 권고안 개발, 국제기준 이행점검 및 국가 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한 **금융규제 개혁** 추진

◇ **(구성)** G20 회원국의 재무부·금융당국·중앙은행 등(한국은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참여)

◇ **(총회)** FSB의 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 FSB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된 금융안정 관련 보고서·국제기준·정책권고를 채택하고 FSB 업무계획, 예산 등을 승인하는 회의

[① 글로벌 금융시장의 취약성 점검]

FSB 회원국들은 글로벌 금융시스템이 현재 전반적으로 **복원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주요국의 국채금리 상승과 높은 부채 수준, AI 투자 확대에 따른 자산가격의 급격한 조정 가능성, 각국의 정책 대응여력 및 충격흡수 역량 저하 등 **잠재적 취약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회원국들은 이러한 위험요인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상호 증폭효과**로 인해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우려사항으로 제기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위원장은 “FSB가 개별위험을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위험요인이 **동시**에 **발생**하거나 **상호 증폭**되는 **복합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를 위해 **복합충격**의 **전파경로**를 면밀히 분석하고, 각국 **금융당국 간 정보 공유**와 **정책 공조**를 강화하여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② 인공지능(AI)]

FSB 회원국들은 금융권의 AI 활용 확대가 금융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AI를 악용한 **사이버공격**과 **금융범죄**, **특정 AI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의존도** 확대 등이 금융시장에 새로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 위원장은 **AI를 활용한 사이버위협**의 고도화가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AI 기반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AI 방어체계** 강화, **금융권**의 **대외 접점** 및 **내부통제체계**에 대한 **전면 점검** 등 한국의 대응 노력을 소개하였다. 또한 “FSB가 금년 10월 발표한 ‘책임있는 AI 도입을 위한 모범관행’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AI 서비스 제공업체의 집중위험과 국경 간 사이버위협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③ 금융위기 대비 체계]

FSB 회원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마련된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 및 부실정리 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디지털 뱅크런**과 **사이버공격** 등 새로운 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FSB의 취약성 분석과 위기대비 체계의 연계, 정리 관계당국 간 협력 강화, FSB 핵심준칙(Key Attributes)의 이행력 제고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위원장은 “새로운 권고사항의 도입보다 FSB 핵심준칙에 따른 **정리체계**가 **실제 위기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금융시스템 취약성 분석결과를 **자체정상화 및 부실정리계획**과 **모의훈련**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한국**의

신속정리제도 법제화 추진 노력과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 등 국내 위기대응 역량 강화 노력을 소개하였다.

[④ 스테이블코인]

FSB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관련 취약성을 점검한 결과, 현재 **시스템적 위험은 제한적**이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이용이 확대되고 대규모 상환 요구가 발생할 경우 **전통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로 위험이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회원국들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국경 간 취약성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공유하고, 국가간 협력 강화, 정보공유 활성화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국경 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 간 감독 협력**과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며 "국가별 디지털자산의 **제도화 속도**와 **규제 수준**의 차이로 인해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한 **규제·감독 협력**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⑤ 비은행금융중개(NBFI)]

FSB 회원국들은 비은행금융중개 부문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①취약요인 분석, ②데이터 공백 해소, ③기존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④감독당국 간 정보공유 촉진** 등 4가지 접근방식을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비은행금융기관이 국채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레버리지 거래전략**과 관련된 취약성을 파악하기 위해 **공통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공개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위원장은 국채 현물, 선물, 레포 거래 등에 내재된 **레버리지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공통지표**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25년 마련된 **NBFI 레버리지 권고안***의 **이행현황**과 동 권고안의 **위험완화 효과**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Leverage in 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 Final report」('25.7.9.)

[⑥ 글로벌 보험산업 위험평가]

FSB 회원국들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글로벌 보험산업 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산업의 잠재적 금융안정 리스크를 논의하였다. 특히, **자산집약형 재보험**(Asset-Intensive Reinsurance)과 **사모신용**(private credit) **투자 확대**에 따른 리스크에 주목하였다.

이 위원장은 "자산집약형 재보험과 사모신용 투자 확대는 보험회사의 자본 효율성과 장기투자 기회를 높일 수 있으나, **위험집중**과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성**을 확대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⑦ 국제 감사 · 윤리기준 제정기구의 지배구조 개선]

FSB 회원국들은 국제 감사·윤리기준 제정기구의 재원조달, 조직구조 및 지배구조 개선방향을 논의하였다. '20년 개혁 이후 기준제정기구의 독립성과 공익성이 강화되었으나, 공익감독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주요 과제로 제기됨에 따라 재원 조달방식 및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이 위원장은 "국제 감사·윤리기준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이고 다변화된 재원조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특정 이해관계자에 대한 과도한 재정 의존을 방지하고, 독립적인 공익감독과 전문적인 기준제정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⑧ 2027년 FSB 업무계획]

FSB 회원국들은 2027년 FSB 주요 업무과제로 **①AI 관련 금융안정 위험 대응, ②비은행금융중개 부문의 복원력 강화, ③스테이블코인 규제·감독체계 점검, ④국경 간 결제 시스템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특히 AI를 활용한 금융사기 대응, 에이전트형 AI(Agentic AI) 관련 리스크 분석, 레버리지 거래에 따른 취약성 등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키로 하였다.

이 위원장은 AI, 스테이블코인 등 신규 리스크 요인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대응방안 마련이 '27년 FSB의 주요 업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아울러 "FSB 지역자문그룹(Regional Consultative Group, RCG)이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신흥국 시장의 자본유출 및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 등도 FSB 업무 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하였다.

[美 SEC 폴 앳킨스 의장 면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FSB 총회 참석을 계기로 **폴 앳킨스**(Paul Atkin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을 만나, 최근 **글로벌 자본시장**에 대한 견해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최근 급속한 환경 변화는 금융산업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금융안정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새로운 과제를 가져온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양국 자본시장의 안정 확보와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 유럽중앙은행(ECB)과 은행감독협력 MOU 내용 최종 합의

이 위원장은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의 **프랭크 엘더슨**(Frank Elderson) **ECB 감독위원회 부의장**(Vice Chair of the Supervisory Board)을 만나 금융위·금감원-ECB 간 **은행감독협력 MOU** 내용에 최종 합의하였다. MOU 체결은 연내 전자서명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동 MOU는 '24년부터 양 기관이 약 2년간 지속적으로 논의해온 것으로, 양 기관 간 협력 및 정보공유 체계를 공식화하고, 양 지역에 상호 진출한 **은행 관련 감독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교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내 MOU가 체결되면, EU에 진출한 **우리 금융회사들의 애로사항**을 EU 금융당국에 보다 신속하게 전달하고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위원장과 앨더슨 부의장은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과 이에 대응한 은행감독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위원

장은 금융감독 정책이 급변하는 금융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감독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ECB의 감독체계 개선 방향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에 엘더슨 부의장은 ECB의 '차세대 감독 프로그램(Next Level Supervision)'을 소개하며, 주요 위험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고 감독절차와 승인기간을 단축하는 등 은행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ECB의 노력을 설명하였다.

3 한-영 금융협력 네트워크 확대

영국은 '27년 G20 의장국을 맡고, 이어서 '28년에는 우리나라가 **G20 의장국**을 맡게 되면서 양국 간 금융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또한, 영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금융혁신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운영**해 온 국가이며, 특히 런던은 대표적인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 주요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고 각국의 금융회사들이 진출해 있어 글로벌 금융산업의 최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지역이다. 이에 이 위원장은 영국 금융당국 및 금융회사와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런던을 방문하였다.

* GFCI(글로벌 금융센터 지수) 순위('26.9월) : (1위) 뉴욕, (2위) 런던, (7위) 서울

[英 정부 · 의회와의 금융외교]

이 위원장은 **런던금융특구, 영국 의회** 및 **금융당국** 등 **3각 채널**의 주요 인사들과 연이어 만나 적극적인 **금융외교**를 추진하고, **韓-英 금융협력**의 기반을 확대하였다.

먼저, **브로넥 마소자다**(Bronck Masojada) 신임(11.13일 취임) **런던금융특구 시장**(Lord Mayor)을 만나 양국 간 금융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양측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환금융과 ESG 공시 분야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또한 양측은 양국 금융회사 간 상호 진출과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이 위원장은 **존 슬링어**(John Slinger) **對한국통상특사 겸 하원의원**을 만나, 韓-英 투자·금융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슬링어 의원은 한국 금융기관의 영국 진출 확대를 환영하며, 영국을 글로벌 사업 확장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이 위원장은 한국 금융회사의 영국 진출 확대와 이를 통한 국내 금융기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가능성에 공감하며 양국 간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캐서린 브래딕**(Katherine Braddick) 영국 **건전성감독청**(PRA,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청장**과 만나,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과 양국 간 금융감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양측은 AI 확산에 따른 사이버 위협과 금융시스템의 운영 복원력 확보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규제 동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금융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금융의 실물분야 지원 기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의 균형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업권별 주요 금융기관 면담]

금융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중심지 런던에 소재한 주요 금융기관을 만나 글로벌 금융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스탠다드차타드**(Standard Chartered) **그룹**의 **빌 윈터스**(Bill Winters) CEO(Chief Executive Officer)를 만나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전망과 AI·사이버 보안·디지털자산 등 최신 금융 현안을 논의하였다. 이 위원장은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AI 기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글로벌 금융회사의 대응 방안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윈터스 CEO는 한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AI 기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금융회사의 '생존 역량'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유럽 최대 자산운용사인 **아문디**(Amundi)의 **그레고와르 페스케**(Grégoire Pesques) CIO(Chief Investment Officer)로부터 글로벌 투자자가 바라보는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페스케 CIO는 AI·반도체

경쟁력과 재정건전성 등을 한국 경제의 강점으로 평가하고,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거래시간 확대가 글로벌 투자 유치에 중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이에 이 위원장은 한국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글로벌 투자자들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 London Stock Exchange Group)의 **데이비드 슈윔머**(David Schwimmer) CEO를 만나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완료 등 양측 간 협력 성과를 이야기하고, 양국 자본시장 인프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견해를 나누었다. 양측은 T+1 결제주기 전환, 거래시간 확대 등 최근 추진 중인 정책의 원활한 도입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자본시장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 위원장은 **로이즈**(Lloyd's) **보험시장의 의장**인 **찰스 록스버러 경**(Sir Charles Roxburgh)을 만나 한국 보험회사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양국 보험시장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로이즈는 다수의 독립적인 보험 인수조직이 모여 전 세계 기업의 다양한 위험을 인수하는 글로벌 보험 시장이다. 록스버그 의장은 더 많은 한국 보험사들이 로이즈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복잡·다변화된 위험에 효과적인 보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 시장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AI, 기후변화 등 새로운 위험의 부상에 따른 보험산업의 변화와 혁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글로벌 핀테크 기업 방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글로벌 핀테크 기업인 **레볼루트**(Revolut)의 **시드 자조디아**(Sid Jajodia) CBO(Chief Banking Officer)를 만나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 사례를 살펴보았다. '15년 설립된 레볼루트는 여행용 카드 서비스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42개 국가에서 하나의 앱을 통해 해외 결제·환전·송금, 예금·대출, 주식·가상자산 거래까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이 위원장은 레볼루트를 금융서비스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한 성공 사례로 평가하고, 금융위원회도 한국 핀테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금융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4 현지금융사 간담회 개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독일·영국**에 **진출**한 **금융회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해외 영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한국과 상이한 금융규제 및 감독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였다.

이에 이 위원장은 “현지 금융당국과 금융위원회가 긴밀히 소통하여 우리 금융회사의 영업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 만큼, 앞으로 해외 당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담당 부서	금융정책국 글로벌금융과	책임자	과 장	나혜영 (02-2100-2880)
		담당자	사무관	임두봉 (02-2100-2893)
			사무관	김혜수 (02-2100-289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